

사찰도 이젠 평생교육 시대

통도사 평생교육원 문화강좌 등 인기

영축총림 통도사 평생교육원(원장 원산)이 평생교육원 졸업생들의 솜씨를 뽐내는 전시의 장을 마련해 화제다.

통도사평생교육원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가오는 하반기 교육 일정을 알리는 '평생교육원 문화의 밤'을 6월 14일 통도사 자비도량 연수원 6층 세미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평생교육원 문화의 밤'에서는 '마음으로 만나는 전통 조각보, 궁중다식'이라는 주제로 공예 명장 김순향 관장 및 수강생들의 조각보 전시와 박소영 궁중음식전문가 및 수강생들의 궁중다식 전시가 열렸다.

이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엿볼 수 있어 참석하는 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본식에 앞서 '선재 스님 사찰음식 집중연수'를 지도하는 선재 스님과 수강생들이 정성스런 사찰음식을 준비해 참석하신 내빈과 스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통도사 연수원 연수국장 도안 스님은 "통도사 평생교육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공익사회 내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했다.

통도사 주지이자 평생교육원 원장인 원산 스님은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다식과 조각보는 수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조각보의 한 땀 한 땀에 간곡한 움직임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도 정성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성스럽게 임하는 것이 인간다."고 당부했다.

6월 14일 자비도량 연수원서 조각보·궁중다식 전시 '눈길' 선재 스님 사찰요리 강좌 인기

의 도리이며 불자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제2부에서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초의 차명상'을 지도하는 지장 스님이 수강생들과 함께 차 명상을 연수'를 지도하는 선재 스님과 수강생들이 정성스런 사찰음식을 준비해 참석하신 내빈과 스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양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은 통도사 평생교육원은 사찰음식, 차명상, 전통조각보, 궁중다식, 불교와 심리치유 등 다양한 강좌로 큰 인기를 끌고 있



평생교육원 원장 원산스님이 전시된 궁중다식을 관람하고 있다.

다. 특히,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이자 사찰음식 전문가로 알려진 선재 스님의 '자연건강 사찰음식' 강의는 스님만의 독특한 사찰 요리법을 배울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또한, 공예명장 김순향 관장의 섬세한 지도로 진행되는 전통조각보 강좌도 수강생들이 어렵지 않게 전통조각보 공예법을 습득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를 1년 동안 수강한 박남경(52)씨는 "사찰음식을 배우면서 건강도 되찾고 사찰음식으로 포교에 힘쓰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원산 스님과 선재 스님

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도사 평생교육원의 위치와 시설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통도사 자비도량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원 강좌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통도사 평생교육원은 이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http://www.tongdoacademy.com>)으로 가능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한 수강생은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055)-367-8851

김나영 객원기자

문수급식센터 5년간 무료급식 2만명

효신 스님 40여 봉사자들과 지역 어르신 위해 봉사

대구 문수급식센터(센터장 효신, 수성구청소년수련원장)가 5년 동안 무료급식을 이어오고 있어 화제다. 수성구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 대구 경찰청 법무회, 달서구청법무회, 달서경찰서 법무회 등 40여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문수급식센터는 달서구 월배공원에서 매일 300여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 지역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던 효신 스님은 고향인 대구에 정착해 지역포교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그러던 중 이웃과 나누며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효신 스님은 "처음에는 매주 급식을 했는데 이웃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하게 되면서 매일 둘째 주 토요일만 급식을 하게 되었다"며 "이웃 종교와 함께할 수 있어 더 의미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발족 후 현재까지 문수급식센터가 제공한 무료급식에 참여한 인원은 약 2만여 명에 이



문수급식센터는 매일 둘째 주 토요일 달서구 월배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다. "매일 급식 때는 300여 명이 참여하고 초파일이나 동짓날 같은 때는 600여 명이 식사를 한다. 이밖에도 대구교도소 법회를 지원하는 등 자비와 나눔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급식센터 현장에는 달서경찰서와 구청 등의 법무회 가족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

을 끈다. 문수급식센터장 효신 스님은 중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를 졸업했다. 교정교화 전법단 지도법사, 대구경북 전법단 지도법사, 동화사 사회공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수성구청소년수련원장,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 소임을 보고 있다.

정혜승 기자 bwjns@hyunbul.com

제16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제... 부산 현충공원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제16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부산 화명 신도시 현충공원 내에서 6월 13일 봉행했다. 진여원과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진여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위안행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남보타월 진여원 원장, 6·25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호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다한 영가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가졌다.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이 6월 13일 현충공원서 향을 올리고 있다.

참가스님 및 보훈유가족대표들이

발한 왕생극락 기원등을 시작으로 현충공원 기념비 앞에서는 헌화 및 분향이 진행됐으며, 제53사단 125연대의 조총발사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보훈유가족 장학금 대상 장학금 전달식 등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보훈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김나영 객원기자

여름방학,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학생 무료 템플스테이

여름방학을 맞아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템플스테이 '깨어나 웃어라'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무료로 진행한다. 지난 6월 7일 고등학생 대상 템플스테이에 이어 이번 대학생 대상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화합과 협동 등의 덕목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취업시험과 스펙 쫓기에 바빠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와 같은 무료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하게 됐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한마음 부산지원은 "이번 템플스테이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 자유스러움을 되찾아 궁극적으로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성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대학생 무료 템플스테이 체험은 총 두 차례로 각각 1박 2일씩 진행된다. 1차는 7월 4일~5일, 2차는 8월 29일~30일이다.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프로그램은 참선, 발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진행되며 불자가 아니어도 참여가능하다. 세면도구 외 개인 별도의 준비물은 없으며 의복도 제공된다. (070)4650-5535

김나영 객원기자

사하불교聯 '노인위문공연'

6월 11일 한우리 요양병원서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범인)와 사하사암무료급식소가 주최한 '노인 위문공연 및 경호잔치'가 6월 11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우리요양병원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노인 위문공연을 준비한 사하불교연합회는 200인분의 빵과 음료를 준비해 한우리요양병원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병동에 들러 빵을 직접 전달한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범인 스님은 "오늘 공연으로 어르신들이 병고는 잊으시고 즐거움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위문 공연에는 한우리요양병원 관계자



회장 범인 스님이 한우리요양병원 어르신들 격려하고 있다.

및 어르신 등 총1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하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아 19년째 사하사암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정여 스님 <나를 찾아가는...> 출판기념회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의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 출판기념회'가 6월 18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여 스님의 첫 명상 안내서인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맑은소리)은 맑은나라 발간은 스님과 불자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정여 스님의 쉽

고 간결한 문체의 명상 이야기와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

선 명상 시연으로 특별하게 시작한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가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김계춘 신부, 방영식 목사, 이재원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정여 스님은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으로 물질로 향해있던 마음을 본래의 맑고 고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과 정여스님

한 마음의 고향으로 안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인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불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 | | |
|--------------------------|---------------------------|
|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
|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
|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
|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

